기 고 노 재 호 순천경찰서장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에 온 국민적 관심 필요

최근 유명 연예인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등 우리 사회에 불법음란물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이버상 폭력의 온상이 된 인터넷 음란물이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이래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등 온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불법음란물은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각종 SNS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거나 은밀하게 거래되기에 이를 만든 사람이나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는 것이 비단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사이버상 불법음란물 유포는 계속되는 복제와 강한 전파성 때문에 몰래 촬영된 피해자의 경우 2차적으로 지속되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경찰청에서는 2018년 8월부터 100일간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웹하드, 각종 SNS 등 유통 플랫폼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내 최대 웹하드 실소유주를 포함하여 운영자 47명, 헤비 업로더 347명을 검거하고, 해외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92개를 폐쇄하였으며,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물에 대한 피해가 멈추지 않고 있어 원천적 차단과 근절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고 이를 삭제, 차단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성인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어디에서든 손쉽게 불법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만큼, 한정된 인력인 경찰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각종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온 국민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를 황폐화하는 불법음란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 한마음으로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개인의 의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박상욱 / 영암 삼호119센터 소방위

응급처치법 숙지 건강유지 생활화 해야

구급대원으로서 구급출동을 하다보면 각종 사고현장에서 다양한 출혈환자를 자주 접하게 된다.

출혈이란 체내의 혈액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혈부위에 따라 체내 밖으로 보이는 외부출혈, 장기 등에 출혈이 보이는 내부출혈로 구분된다.

혈액은 정상 성인은 체중의 7%(70ml/kg)에 해당하는 혈액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혈액량의 10% 이상이 출혈하게 되면 위험하며 특히 유아는 30ml 정도의 소실로도 쇼크(실신)에 빠질 수 있어 신속한 지혈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지혈 방법으로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써 출혈되는 상처부위를 거즈나 거즈가 없을 시는 깨끗한 수건으로 덮고 손으로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거즈를 덮고 압박붕대로 감아준다.

만약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혈액이 묻은 거즈를 제거하지 말고 새 거즈를 추가로 덮어 붕대로 한차례 더 감고 손으로 출혈부위를 더 세게 압박해 본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줌으로써 출혈량을 줄일 수 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하여 지혈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지혈대는 다른 방법으로 출혈을 멈출 수가 없을 때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팔이나 다리에 괴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마다 지혈대를 풀어서 출혈부위 조직의 괴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혈대를 이용한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지혈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 하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지혈시간을 반드시 표기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풀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김승호 / 무안소방서 구급담당

社 說

고령운전자 배려책 절실하다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 표지 글자크기가 확대된다니 기대가 크다. 도로 표지 내 영문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표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 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 표지판 규격 내에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고속도로 표지판을 통해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는 방식도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표지 영문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영문표기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동일지명에도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영문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을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 인공지명)으로 분류하고 '안내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정립했다.

지금까지 도로 표지 글자크기가 갈수록 고령화돼 가고 있는 인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을 통해 전 국민의 안전운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入	들	입
奉	받들	봉
母	어머니	모
儀	거동	의

入 奉 母 儀

▷뜻: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종사(從事)해야 함.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